

‘올 2100억 적자’ 자동차 보험료 얼마나 올릴까

손보사 1~9월 손해율 83.7%
중소형사는 손해율 100% 넘어
업계 보험료율 검증 절차 추진
3% 안팎 인상으로 마무리 전망

올해 1~9월 중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21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의 영업손익도 마이너스였다.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감소하고 손해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3.0%) 감소했다. 지난해 보험사별 보험료 인하,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사업비율은 18.2%로 전년 동기(19.0%)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인터넷 가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 1~9월 78.9%로 양호했으나 올해 1~9월 83.7%로

(2018년 1~9월 손보사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삼성	현대	KB	DB	메리츠	한화	롯데	엠지	흥국	악사	더케이
손해율	83	82.2	85.1	83.9	79.7	85	89.4	95.4	95.9	84.5	91.2
사업비율	17.8	19.3	20	17.3	20	20.2	17	29.1	22.2	8.9	13.1
합산비율	100.8	101.5	105.1	101.2	99.7	105.2	106.4	124.5	118.1	93.4	104.3
영업손익	▲269	▲360	▲712	▲284	16	▲221	▲191	▲58	▲140	211	▲96

단위: %·억원.

/자료=금융감독원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2018년 1분기 82.6%에서 2분기 80.7%로 개선됐으나 3분기 폭염 등에 의해 87.6%로 다시 악화했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이지만 10월 가마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를 넘겼다. KB손보(94.5%), 현대해상(93.8%), DB손보(92.8%), 삼성화재(90.4%) 순으로 높았다. MG손해보험(124.5%)과 흥국화재(118.1%) 등 중소기업사의 손해율은 100%를 넘어섰다.

사업비율 개선(하락)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면서 전년 동기 흑자(2437억원)였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올해 1~9월 -2104억원으로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약 4500억원이 감소한 셈이

다. 분기별로는 1분기 영업손실(-483억원)이 발생한 후 2분기 영업이익(367억원)을 시현했으나 3분기에는 대규모 적자(-1988억원)를 기록했다.

오는 1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업계 1위사 삼성화재를 제외한 현대해상, DB손보,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4개 손보사의 올해 3분기(7~9월) 당기순이익은 3747억원으로 전년 동기 4762억원에 비해 1015억원(21.3%) 감소했다.

현대해상의 3분기 순이익은 1009억 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3조2162억원)과 영업이익(1445억4400만원)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와 12.9% 줄었다.

KB손보의 3분기 순이익은 1035억원에

서 493억원으로 542억원(52.4%) 줄었다. 메리츠화재는 934억원에서 729억원으로 205억원(21.9%), 현대해상은 1239억원에서 1009억원으로 230억원(18.5%), DB손보는 1554억원에서 1516억원으로 38억원(2.5%) 순이익이 줄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등 4개 대형 손보사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0%를 초과 상회한 수준(100.8%~105.1%)으로 대형 4개사 모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손해액과 사업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다는 의미다.

금융원 관계자는 “손보사 간 가격경쟁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및 부품가격, 한발진료비 등 손해액 증가에 따라 합산비율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요금 상승과 상급병원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폭염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실적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를 약 3% 인상하는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조정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받

여해 인상을 혹은 인하율을 산정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거친다.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사도 주요 정비업체와 정비수가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보험료를 검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형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악사(AXA)손해보험 등 중소기업사들도 따라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료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는 최소 7~8%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3% 안팎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적정 정비요금은 작업시간당 평균 2만8981원으로 약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최근 실제 재계약 결과 인상폭이 3.4%까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치가 말해주듯 손해율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올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해율 상승은 실적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단계적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KEB하나銀, 일자리 위해 기보에 100억 출연

혁신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KEB하나은행은 12일 기술보증기금과 일자리창출 및 신기술 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성장 분야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신규 고용창출을 돕고 혁신성장 기업을 발굴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특별출연금 95억원, 보증료지원금 5억원 등 총 1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일자리창출기업과 혁신성장분야 기업 등에 약 274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본 협약의 대상기업은 일자리창출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사회적

기업 등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두가지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하며, 보증료 연 0.2%를 5년간 감면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KEB하나은행이 3년간 보증료 연 0.2%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이 3년간 보증료 연 0.2%를 감면하여 총 연 0.4%의 보증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부터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젝트(이하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시행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총 1조 5000억원 규모 소진시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번 협약은 행복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상기업은 금융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하나 플레이폼’ 통해 디지털전환 문화 확산

하나금융그룹 임원 110여 명 대상
동양화·팝아트 등 체험수업 진행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 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 문화 확산을 위해 10월, 11월 두 달간 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하나 플레이폼’을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하나 플레이폼’은 디지털 비즈니스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김정대 회장의 디지털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재능은 있지만 손님을 만나기 어려운 스타트업 업체 및 강사들에게 온·오프라인 채널을 ▲영업장 활용에 고민이 많은 소상공인에게는 공간제공을 통한 추가매출을 ▲참여자들에게는 다채로운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형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그룹 임원 110여명 대상으로 총 8회차에 걸



하나금융그룹 ‘하나 플레이폼’ 체험 행사에서 임직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쳐 펜드로잉, 동양화, 팝아트, 가죽공예 등의 체험 수업을 진행했으며 향후 참가대상을 그룹사 직원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임원은 “서비스 제공자와 장소 제공자의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더욱 손쉽게 누리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디지털 전환이란 말을 접했을 때 막연히 기술적인 것으로만 느꼈

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생각의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준성 하나금융그룹 디지털총괄 부사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에 대한 관심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소비자의 니즈를 실시간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휴머니티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김대익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NH농협은행 올원뱅크 전용 ‘NH올원해봄적금’

NH농협은행은 목표를 향해 매일 도전(해봄)하는 고객을 위한 올원뱅크 전용 금융상품인 ‘NH올원해봄적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NH올원해봄적금은 올원뱅크에서 ‘해봄하기’ 목표설정을 통해 금연, 다이어트 등 본인만의 도전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매일 도전을 성공할 때마다 간편한 버튼 클릭 한번으로 적금에 입금이 가능한 올원뱅크 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고객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NH올원해봄적금에 ‘해봄하기’ 버튼 클릭을 통한 입금실적과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원뱅크 전용상품 가입과



객과 300만 회원대상 응원댓글 작성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쿠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은행 실시간 해외송금 19개국으로 확대

KB국민은행은 ‘KB 원 아시아(ONE ASIA) 해외송금 서비스’ 제휴은행을 기존 18개국 135개은행에서 19개국 150개은행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KB 원 아시아 해외송금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해외 제휴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해외송금 특화 서비스다. 대만과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주요 19개국 대상으로 미국 달러와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수수료는 송금액과 상관없이 1000원으로 동일하고, 당일 송금 수취가 가능해 고객들은 기존 송금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